

2023. 6. 17.(토) 조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

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	이용남	300-5505
공원여가과장	강현주	300-5616
여가정책팀장	김정미	300-5573
홍 보 담 당	이상미	300-5579
관련 누리집	http://yeyak.seoul.go.kr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선유봉이 공원이 되기까지, "선유도이야기" 전시로 만나보세요

- 시, 선유정수장 재활용한 친환경 생태공원인 선유도공원에서 역사담은 전시회 개최
- 조선시대 선유봉에서 오늘날 선유도공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 무료 전시(6월~8.20)
- 과거와 현재의 사진, 그림, 조형물 및 영상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시
→ 공공서비스예약 사전신청 통해 '선유도 돈보기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(월 2회)

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선유도공원의 데크 및 선유정 등 시설 보수를 완료하고, 20여년간의 선유도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'당신이 몰랐던 선유도 이야기' 전시회를 6월부터 8.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.

○ 선유도공원은 선유정수장 시설을 재활용해 2002년 4월 26일에 개장한 서울시 1호 재활용 생태공원으로 수생식물원, 환경놀이터, 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이다.

- 선유도공원은 조선시대 한양 양천에 있던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섬으로 중국 사신들이 풍류를 즐겼을 만큼 그 경관이 수려하고 유명한 관광지였으며 당시 양천현감인 겸재정선의 그림에서도 선유봉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. 그 후 일제강점기와 광복이후 여의도개발 등에 선유봉의 돌이 사용되며 채석장으로, 1970년대 서울의 도시 팽창으로 선유정수장으로 변화했다. 2000년 정수장 폐쇄로 2002년 선유도 공원으로 재조성되었다.

- ‘당신이 몰랐던 선유도 이야기’ 전시는 선유도공원으로 재조성되기까지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사진, 그림, 조형물 및 영상 등으로 꾸몄으며, 선유도 이야기관에서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.
 -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해 휴관한다.
 - 1층에는 선유봉, 채석장, 정수장의 이야기를 전시하였으며 겸재 정선의 그림과 옛날 사진, 그리고 서울시 기록물 및 영상물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.
 - 지하 1층에는 선유도 공원의 대표 장소인 녹색기둥의 정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공간을 조형물로 표현하여 전시하고 있다.

- 또한 전시와 함께 선유도공원만의 매력적인 장소 안내와 생태 해설을 통해 더 자세한 관람이 가능한 ‘선유도 돌보기 프로그램’이 별도 운영된다. 프로그램은 월 2회(6.17(토), 7.15(토), 8.19(토), 10:30 /

13:00) 가족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공서비스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.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(☎300-5574)로 문의하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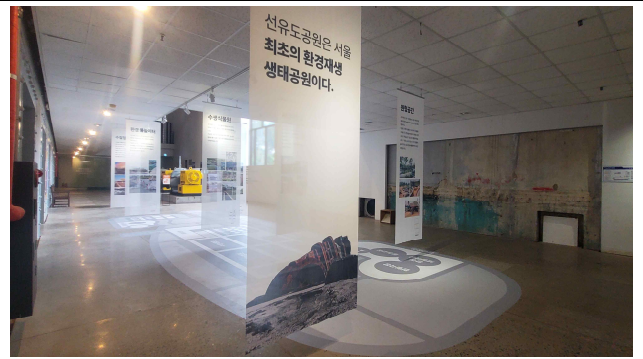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이용남 소장은 “서울시 최초 기존 시설을 재 활용한 친환경 생태공원인 선유도공원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 공원이 조성되기까지의 역사와 공원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알아가는 힐링시간을 보내길 바란다.”고 전했다.

첨부 : 전시회 포스터, 사진 각 1부

□ 포스터 및 관련 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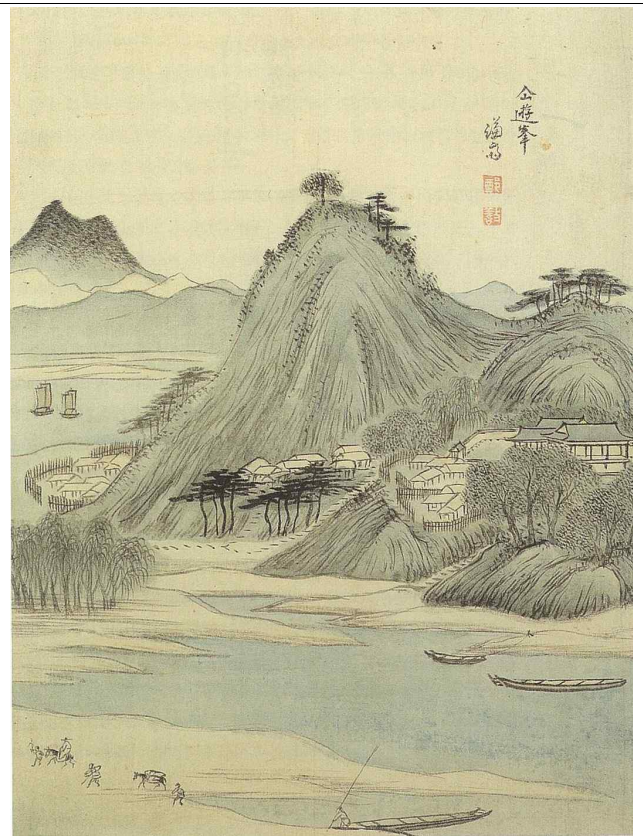
전시 포스터



전시 모습



과거 정수장 전경



겸재정선이 그린 선유봉 그림